

# 글로벌 전동화 시장 리더십 확보... 고성능 기술력 '재입증'

## 현대자동차·기아

EV6 GT·제네시스 GV60

독일 차 전문지 평가 각각 1·2위  
안전성·편의성·주행거동 등 평가  
전용 플랫폼 E-GMP 우수성 '주목'



기아 EV6 GT.

현대자동차·기아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동화 기술력을 앞세워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독일 등 전통의 자동차 강국에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탑재된 동력 시스템 등의 우수성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기아 EV6 GT와 제네시스 GV60이 독일 3대 자동차 전문지 '아웃도 모터 슈포트' 전기차 비교평가서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앞서 현대차는 아이오닉 6의 동력 시스템이 미국 자동차 전문지 위즈오토가 선정한 '2023 위즈오토 10대 엔진 및

동력 시스템'에 선정된 바 있다.

'아웃도 모터 슈포트' 전기차 비교평가는 EV6 GT와 GV60 스포츠 플러스, 포드 머스탱 마하-E GT 등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 중인 3개 브랜드의 고성능 트림을 대상으로 ▲보디 ▲안전성 ▲편의성 ▲파워트레인 ▲주행

거동 ▲친환경성 ▲비용 등 7개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EV6 GT는 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총점 602점으로 GV60(586점), 머스탱 마하-E(552점)를 제치고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핸들링, 주행 역동성 등과 관련된 주행 거동 항목에서

는 95점을 받아 GV60(78점), 머스탱 마하-E(85점)를 크게 앞섰다.

GV60은 7개 평가 항목 중 실내 공간, 다용도성·기능성 등과 관련된 보디 항목과 가속력, 출력 지속성 등을 평가하는 파워트레인 항목에서 EV6GT에 근소하게 앞서며 최고점을 기록했다. 또 승차감과 정숙성, 편의사양과 관련된 편의성 항목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위즈오토로부터 '10대 엔진 및 동력 시스템'으로 선정된 현대차 아이오닉 6는 우수한 주행 성능과 초고속 충전 기술, 긴 주행거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오닉 6는 사륜구동 기준 최고 출력 239kW, 최대토크 605Nm의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77.4kWh 배터리를 장착한 롱레인지 모델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는 최대 524km(이륜구동, 18인치 휠 기준)에 달한다. 또 800V 고전압 시스템을 기반으로 약 18분 만에 배터리를 10%에서 80%까지 초급속으로 충전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는 초고속 충전, 낮은 무게 중심, 뛰어난 공간활용성 등 전기차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장점인 초고속 충전은 최대 800V까지 충전을 지원한다.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업체들의 충전 속도보다 빠르다.

아웃도 모터 슈포트는 "EV6 GT는 재미있고 빠르게 달리면서도 안정적으로 코너링할 수 있는 차량"이라며 "가성비(가격대비 성능)가 뛰어나고 긴 보증기간과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의 우수성 덕분에 재판매 가치도 높을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어 "GV60은 센터콘솔에 위치한 다이얼 타입의 인포테인먼트 조작계가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칭찬하며 "차원이 다른 편안함을 제공하는 서스펜션과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도 매력적"이라고 평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SKT, 이동 패러다임 'AI 모빌리티' 시대 열 것

기체 제조사 준비와 UAM 상용화 기술·인프라 등 UAM 실증사업 투입  
국내 환경 최적화된 운항 역량 검증



지난 20일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하민용 SKT CDO(왼쪽)와 에릭 앨리슨 조비 부사장이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T

SK텔레콤이 글로벌 UAM(도심항공교통) 기체 제조사 준비에비에이션(Joby Aviation)과 대한민국 UAM 상용화에 나선다.

SKT는 조비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 및 상용화를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일 SK T타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국토교통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기관도 참석해 양사와 실증사업을 포함한 향후 상용화 일정 및 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사는 계약 체결과 함께 기술, 인프라, 인력 등 역량 전반을 UAM 실증사업에 투입해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안전 운항 역량을 검증한다.

SKT와 조비는 내년 전남 고흥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진행되는 실증사업 1단계에서 조비 기체(S4)를 활용해 ▲통합 정상 운용 ▲소음 측정 ▲

비정상 상황 대응 능력 ▲충돌 관리 등 비행 시나리오별 운항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SKT가 구축한 4G·5G 기반의 UAM 특화 상공망을 활용해 UAM 운항 고도인 300~600m 상공에서 통신 품질도 테스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비에서도 자사 기술인력 등을 한국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SKT가 2025년 국내 최초 상용화를 위해 안정적인 기체 확보

계획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내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나 유럽항공안전청(EASA) 같은 글로벌 기관의 인증을 통과한 기체 확보가 필요하다.

조비는 FAA 기체 인증 절차 중 3단계인 인증 계획(Certification Plan)의 약 70% 이상을 완료하고 6월에는 양산형 기체를 공개하는 등 글로벌 업계에서 가장 빠른 인증 속도를 보이고 있다.

SKT는 6월 조비에 1억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며 한국 시장에서 조비 기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SKT는 이번 계약과 함께 내년 조비 기체를 국내에 들여올 계획이다.

하민용 SKT 최고사업개발책임자(CDO)는 "이번 협약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UAM 기체를 내년에 도입해 안전한 운항 역량을 검증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SKT는 UAM을 AI 기술과 접목해 이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AI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ngja\_tea@

## 현대차, 美 소아암 어린이들과 함께한 '25년'

누적 2억2500만달러 기부



정익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 호프 온 힐스 25주년 행사에서 환영 인사를 하는 모습.

현대자동차가 미국 소아암 어린이 치료 지원 프로그램인 '현대 호프 온 힐스'의 25주년을 맞아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현대차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소아암 퇴치를 위한 캠페인 '현대 호프 온 힐스(바퀴에 희망을 싣고)'의 25주년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익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현대차는 '인류를 위한 진보'라는 비전에 의해 제품을 혁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 전 세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올바른 일에 전념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현대차가 소중히 여기는 활동 중 하나가 호프 온 힐스다. 소아암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을 돕고 투병 중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톰 코튼 상원의원,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 등 미 의회 의원들과 조현동 한국 대사를 포함한 주요국 주미 대사, 장재훈·신재원·호세 무뇨스

사장을 비롯한 현대차 임직원과 호프 온 힐스 홍보대사 어린이, 병원 관계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호프 온 힐스는 현대차가 미국에서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현대차는 미국 딜러들과 함께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호프 온 힐스 재단을 설립하고, 1998년부터 소아암 관련 병원 및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어린이 사망의 주요 원인인 소아암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와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소아암을 종식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양성운 기자

## KT, 추석 연휴 지니TV서 최신 영화·키즈 콘텐츠 풍성

해외로밍 혜택도 진행

KT는 추석 연휴기간에 지니 TV에서 다양한 볼거리 이벤트와 해외로밍 혜택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KT는 지니 TV에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9일간 상영 중인 최신 영화와 추석 연휴에 볼만한 추천 영화를 꼽아 '2023 한가위 특집관'을 꾸리고 '한가위 선물 대잔치' 이벤트를 연다.

김혜수, 염정아 주연의 '밀수'와 이병헌, 박서준 주연의 '콘크리트 유토피

아',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1' 등 '한가위 특집관'에 편성된 최신 영화 약 20편 중 1편 이상 구매해 시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10명에게 경품을 증정한다. KT는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들을 엄선해 '연휴에 딱! 좋은 영화 모음 Zip' 메뉴를 새롭게 구성한다. '코코', '엘리멘탈', '라이스보이 슬립스', '해리포터 시리즈, 마블 시리즈와 '킬링 로맨스', '웅남이', '육사오' 등 약 200편의 영화를 모았다.

지니TV 가입자는 지니TV 모바일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TV 화면에서 구매한 영화들을 모바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지니TV 모바일 앱에서 바로 콘텐츠 구매 및 시청,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다. KT는 '신병2', '남남',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 등 자체 제작한 총 20편의 지니TV 오리지널을 3편 이상 시청한 고객 중 2000명을 추첨해 TV 쿠폰 3000원권을 주는 '지니 TV 오리지널 정주행!'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구남영 기자

## LGU+, 프로야구 실시간 승부예측 선택

'스포키' 실시간 데이터 반영 서비스

성된다.

LG유플러스가 자사의 통합 스포츠 커뮤니티 플랫폼 '스포키'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한 프로야구 승부 예측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실시간 승부예측은 현재 점수 및 이닝, 아웃 카운트, 출루 상황 등 실황 데이터를 분석해 예상되는 경기 결과를 선수별 타석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제공하는 기능이다.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기결과를 예상하는 만큼 정확도가 큰 폭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

이번 개편은 KBO 정규리그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순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스포키 이용 고객들이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를 보다 편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실시간 승부예측 외에도 스포키는 ▲AI 기반 하이라이트 영상 ▲타 구장 현황 확인 ▲오디오 모드 ▲팀 전력 비교 등 다양한 신규 기능을 선보이며 편의와 재미를 대폭 강화했다.

/구남영 기자